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국조선해양, 4,160억원 규모 컨테이너선 2척 수주

현대삼호중공업이 4,160억원 규모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함. 친환경 추진 엔진이 탑재되어 통상적 15,000TEU급 컨테이너선박보다 1.5억달러 비쌈. 인도기한은 2024년 상반기임. (선박뉴스)

Samsung Heavy scores \$1.7bn shuttle tanker order

삼성중공업이 유라시아 지역 발주처로부터 셔틀탱커 7척에 대한 블록, 기자재 및 설계 공급계약을 총 17억달러에 체결함. Arctic LNG2 프로젝트 수주로 추측됨. 삼성중공업은 수정된 수주목표인 91억달러를 +13% 초과달성함. (Tradewinds)

중국, 일본도 LNG선은 한국에 발주

중국과 일본이 한국 조선사에 LNG선을 발주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음.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 두 국가이기에 한국에 발주하는 것은 이례적임. 9월말 기준 일본 선사로부터 56.2만CGT, 중국 선사로부터 10.1만CGT를 수주함. (선박뉴스)

Smaller bulkers hold steady while capesizes keep falling

Capesize 벌크선 운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중형 벌크선 운임은 견조함. Panamax 운임은 월요일(18일) 전주대비 +234달러 상승한 36,818달러/일을 기록함. (Tradewinds)

Maersk, 작정하고 미래 연료에 투자

Maersk가 네덜란드 Vertoro에 투자를 결정하며 지속해서 미래 연료 신생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음. Vertoro는 선박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액체리그닌기술을 개발, 독점 생산하는데, 2022년 가동목표로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임. (선박뉴스)

한화시스템, 580억 규모 지뢰탐지기 양산계약 체결

한화시스템, 방위사업청과 580억원 규모 '지뢰탐지기-II(PRS-20K)' 양산 계약을 체결함. 오는 2022년부터 1,600여대를 납품할 계획임. (파이낸셜뉴스)